

진흥회 동정

신임 회장에 현대중공업 劉在皖 사장 선임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2月 26日 한국종합 전시장에서 1998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임기 1년을 앞두고 사임한 李喜鍾 회장 후임에 劉在皖 현대중공업(주) 중전기사업본부 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유재환 회장은 연세대 전기과를 나와 현대건설(주) 부사장, 현대중전기(주) 및 현대전동기산업(주) 대표이사를 거쳐 '94년 부터 현대중공업(주) 중전기사업본부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제4대 회장에 선임된 劉在皖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전기업계에는 높은 덕망과 능력을 겸비하신 사장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그동안 이희중 회장께서 일궈온



▲ 신임 劉在皖 회장

업적을 토대로 진흥회 위상과 전기업계 발전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전과 다름없이 성원과 관심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1998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2月 26日 무역회관 51층에서 재직이사 25명중 20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1998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진흥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97년도 수지결산(안), '98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총회 부의(안)을

심의하고, 동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임기 1년을 앞두고 사임한 李喜鍾은 명예 회장으로 추대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기술개발 등에서 우수한 공적을 올린 동미전기공업(주) 韓相哲 사장에게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1998年度 定期總會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2월 26일 한국종합 전시장(KOEX) 3층 소회의실에서 회원업체 대표 100여명과 정부관계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9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97년도에 진흥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하고 '97년도 수지결산(안), '98년도 업무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비상근 임원 선임 및 해임(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 1년을 앞두고 사임

한 **李喜鍾** 회장 후임으로 현대중공업(주) 중전기 사업본부 유재환(劉在皖) 사장을 선임했다.

또한, LG산전(주) 이종수 사장을 신임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임한 것을 비롯 (주)광명기전 정영수 사장, (주)대한트랜스 김봉균 사장, 삼진변압기(주) 김문환 사장을 각각 이사로 신규 선임했으며, 희성전선(주) 배은출 사장과 서호전기(주) 이상호 사장은 감사로 재선임 됐다.

'98 전기기기 수출구매 상담회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KOTRA와 공동 주관으로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98. 5. 19~5. 23)과 연계하여 '98. 5. 18(월)~5. 23(토)까지 세계각국 30여개국 150여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98 전기기기 수출구매 상담회를 대규모로 개최키로 하였다.

그동안 한국의 전기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세계 12위권으로 발전하였으나 내수·관납 위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93년 부터 매년 10~16억불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연말부터 몰아닥친 IMF 금융위기는 내수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전기공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98. 5. 19~5. 23(5일간)까지 개최되는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계기로 우리 전기산업을 단기적으로 내수부

진 탈출 및 수출촉진 기반구축,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과 21세기 국가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 육성하기 위하여 동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KOTRA 전세계 무역관의 협조를 얻어 발전기·전동기·변압기·개폐기·변환장치·배전제어장치·전기용접기·전선·조명기기 등 전기기기를 총 망라한 수출과 직결된 전기기기 바이어 150여명 정도가 내한하여 '98. 5. 18(KOTRA 대회의실), 5. 19~5. 23(여의도전시장)까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또한 바이어 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전시장내 “KOTRA 상담 지원데스크” 및 “바이어상담실”을 설치하여 참가업체에 한해 개별상담 등을 지원하고 전기기기 제조업체 카탈로그 전시회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한편 동 행사 이외에도 일본의 동경전력등 전력

회사 구매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전시장 바이어 상담실 및 대회의실에서 '98. 5. 20~22(3일간)까지 『일본 전력회사 구매단』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중국국제상회기계해업상회 전기관련 업체와 『한·중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 상담회』를, 인도전기전자공업협회(IEEMA) 구매단과 『한·인도 전기공업 수출상담회』를, 또한 세계각국의 유망바이

어를 대거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동 행사 및 '98 서울국제 종합전기기기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 전시회를 수출전문 전시회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기공업 수출을 활성화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중전기기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최근 국내 경기침체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수출 산업화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인하여 수출 경험이 부족하고 수출 업무에 종사할 전문인력 또한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내수 위주의 중전기기 산업을 수출산업화 하고, WTO 체제하의 국제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출인력을 양성코자 「중전기기 수출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총 40시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수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중전기기 업체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수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번 연수과정에 개설된 주요 과목으로는 ▲중

전기기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전 전략 ▲무역 실무 개요 및 무역 용어해설 ▲국제무역 계약 실무 ▲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 승인절차 및 통관 ▲국제계약서의 기본구조 및 내용 검토 요령 ▲기술·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사업화 전략 등이다.

연수교육을 마친 연수생들은 「그동안 실무에 종사하면서 시행 착오를 많이 겪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본지식이 부족해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단기간내에 습득함으로써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신감과 능력을 쌓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연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했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하반기에는 무역 및 인터넷 과정 중심으로 제2기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